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옛날 옛적 지옥에 사는 악마는 자식을 천 명이나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그러운 새끼 악마들이지만, 악마에게는 사랑스러운 귀염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악마는 골치를 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고 싸워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너희들 때문에 아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악마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울고불고 싸우며 지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악마는 견디다 못해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등쌀에 앓을 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이들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 버려야겠다.’

악마는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얼마 동안 아빠와 떨어져 살지 않을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내 줄게.”

“그 곳이 어디인데요?”

“응, 인간 세상이란다. 경치가 아름답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지.”

악마는 아이들을 구슬려 인간 세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악마의 아이들이 자리 잡아 살게 된 곳은 프랑스 땅의 쥐라 산맥 기슭이었습니다. 이들은 산 속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아이들은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태양은 하늘 한복판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온종일 내리쬐는 뜨거운 피약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으앙으앙! 아빠, 우리 좀 살려 줘요!”

아이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악마는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갑자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악마는 아이들을 보려고 인간 세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악마가 나타나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악마 가 만 든 나 무



“아빠, 피약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다 주세요.”

악마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별도 듣지 않는 지옥에서 살다 왔으니 당연히 피약별이 괴롭겠지. 아이들이 피약별을 피할 수 있도록 숲을 만들어 줘야겠다.’

악마는 쥐라 산맥 기슭에 산사나무를 수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러자 숲이 만들어져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숲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쥐라 산맥에 새로운 숲이 생기자 염소, 양, 사슴 등이 떼로 몰려왔습니다. 동물들은 무척 배고팠는지 나무들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이들은 또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더워서 못 살겠어요! 으앙으앙!”

악마는 지옥에서 아이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또 왜 저러는 거야? 아유, 못 살아.’

악마는 아이들에게 돌아와 엉망이 된 숲을 보았습니다.

‘산사나무가 키가 작아 동물들에게 먹힌 거야. 좀더 큰 나무를 심어야겠다.’

악마는 그 자리에 키 큰 호두나무 수천 그루를 심어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떠났습니다.

눈 밝은 동물들이 숲을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염소, 양, 사슴에다 암소까지 찾아와, 낮은 가지에 달린 잎을 모두 뜯어먹었습니다.

그 때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앙상한 가지 밑에 있던 아이들은 그 비를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를 맞은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차가워서 못 살겠어요. 으앙으앙!”

악마는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들은 비를 맞은 거야. 인간 세상에는 가끔 비가 내린단다. 그나저나 동물들이 잎을 먹어

치워 나무가 볼품없이 되었구나.”

악마는 동물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두꺼운 잎을 가진 키 큰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심은 것이 너도밤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나뭇가지 위쪽에 달려 있어, 동물들이 찾아와도 뜯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너도밤나무 숲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금방 추위가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떠날 차비를 할 때, 너도밤나무는 누렇게 변한 나뭇잎을 하나 둘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별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하얀 비늘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산이 눈으로 덮이자,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나서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을 줄줄 흘리고 콧물콧물 기침을 했습니다.

“엉엉! 아빠, 도와주세요. 으슬으슬 춥고 손발이 시려워요.”



악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뒤집어쓴 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아이들을 찾은 악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도밤나무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군. 나뭇잎을 모두 떨구고 잠들어 버려, 아이들이 눈을 뒤집어쓰게 했잖아. 어떤 나무가 아이들을 잘 지켜줄까? 신이 만든 나무들을 모조리 조사해 봐야겠어.’

악마는 나무라는 나무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켜줄 만한 나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수밖에……. 어떤 나무가 좋을까? 먼저 키가 커야겠지. 가지를 넓게 뻗어 큰 그늘을 만들 줄 알고, 눈과 비를 잘 막아 줘야 하고……. 또한 늦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고, 먹을 수 없게 나뭇잎이 바늘 모양이어야 하고…….’

악마는 궁리를 거듭하여 새로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전나무입니다.

악마는 쥐라 산맥에 전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려 악마를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악마의 아이들은 인간 세상에 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홀리는 못된 악마가 되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악마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전나무 숲에 모여, 달밤에 즐겁게 춤을 춘다는군요.

